

# 고향의 개념 : 그 의미와 가치

신명섭, 이은숙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1. 고향의 개념

「유토피아」와 「노스텔지아」 그리고 이른바 「황금時代」라고 하는 세 가지 관념의 유기적 관계를 논하는 글에서 민속학자인 Alexandre Cioranescu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황금시대를 상상하는 까닭은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뒤돌아보는 경향(tendency to project backwards)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세웠다(Cioranescu, 1971, 85). 그래서일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논제 「고향」도 「옛故자」와 「마을 郷」 두 글자로 표기된다. 즉 「옛날에 태어나서 자란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향이라는 개념의 의미론적인 기본 요소는 흘러간 세월과 언제나 그리운 어린 시절의 유희(遊戱) 공간이라고 하겠다.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 유희 공간은 그 자체가 자유이며, 시간이 망각된 상태에서 뛰노는 삶이 너무나 즐거워서 자아와 온 세상이 온통 하나가 되어 버리는 시골이다(Tuan, 1986, 15). 이와 같은 고향의 이미지를 사진처럼 잘 표현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있는 동요 「고향의 봄」이라고 생각한다.

### 「고향의 봄」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넷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와도 같이 다가오는 이 노래 속에는 그대로 마셔도 좋은 맑은 계곡의 물, 탁 트인 공간, 봄철을 맞아 울긋불긋 만발하는 개나리, 철쭉, 진달래꽃과 또 이들의 색깔과 향기에 끌려 분주히 날아다니는 갖가지 곤충들, 그리고 이 같은 자연미에 매료되어서 뛰쳐나와 노니는 동네 어린 이들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의 속성을 논리적으로 음미해보자면 우리는 곧 순수성, 걱정, 근심과 힘든 노동이 필요없는 자유·행복·평화로 이룩된 이상향(ideal home, 유토피아)을 연상할 수 있다. 유토피아는 물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환상(illusion 또는 fantasy)이며 따라서 고착된 이념(idee fixe), 즉 강박관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고향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이에요, 또 그 본질이 돌이킬 수 없는 옛 향리(鄉理)에 대한 그리움이므로 우울(gloom)과 애수(sorrow) 내지 잠재의식 속의 고통(pain)을 암시한다. 실상 이 같은 다분히 부정적인 속성들은 실향민이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이 있어도 그것이 아련한 추억으로만 간직되는 사람들은 남다르게 깊이 느낄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향수(鄉愁) 즉 「고향이 그리워 느끼는 슬픔」(이희승, 1972, 국어대사전) 이라고 하지 않는가? 유년시절 고향에서 할아버지와 참새잡이 하던 일을 되새겨보는 수필 「나의 유년 시절」에서 필자 박상윤은 이렇게 말한다.

“아 그렇다. 내 어릴적 고향집 지금도 들녘의 황혼이며 대숲의 노래도 여전하겠지... 황혼빛 물든 들녘에 울려퍼지는 엄마의 메아리 소리, 새새끼들의 지저귀. 아직도 낫가에 선하고 오늘은 웬지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뺨 돌아 손수건을 적시네”(전규태 외, 1998, 93).

時空적으로 멀리 떨어진 저 영국의 낭만시인 William Wordsworth도 젊은 시절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보트를 타고 신나게 Windermere 호수를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던 순간 땅거미가 질 무렵 시야에 들어오는 광경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 while he blew his flute  
 ..... the calm  
 And dead still water lay upon my mind  
 Never before so beautiful, sank down  
 Into my heart and held me like a dream(Gill, ed., 1991, 58).

옆의 친구는 피리를 불고 있는데  
 잔잔하고 죽은 듯 고요한  
 호수의 물은 내 마음 위에 누웠네  
 그리고 난생 처음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하늘은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와  
 꿈인 듯 나를 안아주었지

해질녘의 황홀경을 묘사하는 Wordsworth의 글에도 어딘가 박상윤이 기억하는 우수(憂愁)를 자아내는 감정(sank down into my heart)이 엿보인다.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은 물론 19세기 영국 낭만파의 대표 시인이었던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즉美는 곧 진실이라는)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Wordsworth와 동시대의 문학비평가 Thomas De Quincey의 관점이다.

독자여, 그대의 두뇌 속 거둬 양피지 위에  
 적혀진 哀喜의 불가해한 필적들은  
 원시림의 일년생 나뭇잎이나 혹은  
 히말라야山의 만년설처럼 겹겹이  
 쌓여있지만 그렇다고 망각되거나  
 죽는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요(Gill, 1991, 2).

이 말의 요지는 Prelude의 편집자 Stephen Gill이 설명하듯이, “the key to all enquiry about the human being is that nothing that matters is really lost”(ibid.)라는 생각이다. 계속 Gill의 말을 빌리자면, 기억(memory)이란 시인으로 하여금 옛 일을 탐색하고 자기 존재의 모든 단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대리인과 같은 것이며, 경험의 순간들을 간직·강조해주면서 성인에게 평생토록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구원의 힘 즉 활기를 준다(ibid.).

## 2. 고향의 의미와 가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위에서 「다분히 부정적」으로 규명했던 고향의 속성을 재음미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즉, 그리움이라는 것이 대체로 우울이나 애수 같은 상념을 떠올리긴 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원래 행복하거나 아름다웠던 일에 기인하므로 사실 그 속성은 잠재적으로 은근한 긍정적인 에너지(氣)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낭만주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T. S. Eliot (1888-1965)도 그의 역작 Four Quartets에서는 인간이 기억(memory)을 통해서 “자유를 성취하고 또 만사가 과거 속으로 가라앉을 때 조화를 이룬다”고 시사했다 (Mack, *et al.*, eds., 1979, 1268). 그가 “Time past and time future /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Eliot, 1974, 190)라고 읊은 구절이라든가 “Time present and time past /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ibid., p.189)라는 얼핏 듣기에 역설적인 그의 생각은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순환적으로 본 저자의 문명관을 대변해 주거니와 (Mack, 1974, p.1268), 우리 주제로 돌아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점 (즉 기억 / 추억의 순환성 = Circularity)이 「고향」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고향이란 글자 그대로 「옛 향리」로서 시간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추억 속의 장소이므로 슬픔을 자아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고향은 또한 우리에게 추억을 통해서 현재로 다가와 활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자못 능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고향생각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오래도록 되새길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며 정신적인 힘의 원천이 되어 준다. 한마디로 고향은 우리의 “청순했던 나날들”이 담겨있는 동심의 세계이다. 그리고 동요작가 윤석중의 표현대로 “동심은 우주 만물과” 통하며 “나와 나 아닌 세상 모든 것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중앙일보, 1999년 5월 3일, 16) 바로 여기에 고향의 참 뜻과 값이 있다고 하겠다.

## 3. 고향의 지리적 관련성(relevance)

지금까지 말한 고향의 개념, 의미, 가치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지리적 관련성을 지닌다.

1) 고향은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며, 삶의 시공적(時空的) 축이다. 고향은 우리 자신의 근원을 알도록 하며, 정체성을 부여하고, 삶의 대한 긍정적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물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지표 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설날 아침 뉴스에서 한결같이 “부모(고향)를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던 살아 있어야 하겠다,”고 하며 눈물 짓는 실향민을 우리는 본다. 비행사였던 생뱃쥐페리가 사막에 불시착하였을 때도 그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준 것은 고향집이었다. 그는 소설 「야간비행」에서 “어디엔가 검은 전나무와 보리수가 들어찬 정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집이 한 채 있었다. --- 그것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지내는 밤을 견디게 해주었다. --- 나는 냄새가 가득히 밴 그 현관의 서늘한 기운이 그득히 숨어 있는, 그리고 쟁쟁 우는 웅덩이에서 노래하던 개구리까지도 사막의 나에게 찾아와 곁에 있어 주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을 보면, 생애 기간을 통해서 출생지로부터 시작해서 끈임없이 경험 공간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향은 삶의 시공적 축이다. 거기서부터 경험 공간이 확대되고, 이것이 확대될수록 고향의 범위도 확대된다. 고향집을 축으로 이웃, 동리, 도시, 지방, 국가로 우리들의 고향이 동심원으로 확대되어 지구 전체에 이른다. Norton은 고향을 이동하는 좌표(moving reference point)의 원점(point of orientation)이라고 하였다(Norton, 1997, 232). 즉 고향은 현재 정착지(타향)의 대향(對向)에 위치하여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조절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해외로 이민한 한국인의 고향은 한국이다. 달나라를 갔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Glenn의 고향은 지구였다. 따라서 점, 거리, 면, 시간 등의 지리적 개념들을 적용하고, 동시에 인간 중심적 접근이 가능한 지리학 연구의 한 장(場)이 바로 고향이다.

2) 고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이상이며, 전형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란 장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974년 Tuan은 장소에 대한 사랑을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고 하며, 이를 장소애(場所愛, topophilia)라는 신조어(新造語)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연적, 물질적 환경과, 인간의 감정적 애착(affective ties)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환경에 대한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은 심미적인 것으로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순간에 얻는 시각적 즐거움일 수도 있고, 맑은 공기, 물, 대지로부터 감촉되는 싱그러움일 수도 있으며, 그밖에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으로 통해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느낌을 경험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고향이다. 그러므로 topophilia란 쉽게 말해서 추억의 소재지(locus)이며 삶의 의미를 주는 장소(place)에 대한 사람의 감정(feeling)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고향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들이 환경 지각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서 개인이나 어떤 사회적 집단도 동일한 평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과학적 관점조차도 문화적 속박이 있는 법이다(Tuan, 1974, 5-12).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은 오감(五感)을 통해서 이를 지각하고 기억한다. 눈앞에 전개된 하늘의 색깔과 산의 폭선, 손에 쥐어 본 갖가지 먹을 것, 도시의 소음에 섞인 빗소리, 부엌에서 나는 밥짓는 냄새 등은 과거의 사건과 장면을 연상시키며, 과거에 대한 향수어린 추억을 되살린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을 떠난 어린이가 네덜랜드의 목장지대를 지나갈 때 차창 밖을 내다 보며 “한국 냄새(Korean smell)!”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우리가 알던 곳의 경관은 변하고 우리가 걸던 길이 변해도 감각을 통해 얻었던 경험들이 언제나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 생활을 시각에만 주로 의존하게 하고, 특정 공간과 정해진 틀에 매여 살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편안함과 익숙함을 주고, 대자연으로부터 얻는 건강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에 대한 염원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고향에 대한 사랑 즉 topophilia의 조장은 마치 고향을 재현시킨 것과 같은 이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 설정하고, 환경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3) 영토의식(territoriality), 향수(nostalgia)에 관한 심리적 본질의 이해는 환경인지,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도울 것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인간의 보편적 의식 가운데 하나인 영토의식에서 출발한다. 영토란 개인이나 가족, 또는 친밀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또는 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하는 공간으로 지역과 지역의 특정 대상에 대한 선호와 관련된 맥락에서도 사용된다(Parr, 1965, 14). Lewin은 영토의식을 “소유화된 지방색(possessioned locality)”이며, “심리적 삶의 공간(psychological life space)”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총체성이라고 정의한다(Lewin, 1936, 12).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영토의식을 바탕으로 환경가운데 긍정적 가치를 지닌 곳을 근거로 자기의 세계를 구조화한다.

사람들은 소유한 장소에 애착을 갖고 그 장소와 관련이 있는 집단 사이의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장소와 관련된 추억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즉 지방색(locality)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항상 이웃이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농장이나 마을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이것은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과 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문화경관과 관련된 지명(toponym) 연구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현대인은 유목민의 속성을 지닌다. 생애를 통해서 갖가지 요인으로 주거지를 변경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은 영원한 실향민으로 향수(nostalgia)에 젖어 산다. 향수의 원형은 유희 공간과 낙원

의 상실, 즉 유토피아의 상실에 따른 고통이다. 인간은 과거의 특정 시간과 공간으로 형성된 망에 걸려 있는 경험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감각적 경험의 각성에 불과한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를 부여해야만 비로소 생생한 것이 되고, 가치가 생긴다. 즉 고향은 다시는 감각될 수 없는 왜곡된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사람들이 이를 생각할 때마다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양현승, 1987, 177-19). 이은상의 시 <가꿌아>는 이러한 특징을 잘 그리고 있다.

물나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다름질하고  
 물들면 뱃장에 누워 별해다 잠들었지  
 인제는 못그런다니 설어워라 설워워(이은상, 가꿌아).

박완서는 그의 고향 박적골을 “나의 낙원이었다. 뒤란은 작은 동산같이 생겼고 딸기 줄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밖에도 앵두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가 때맞춰 꽃피고 열매를 맺었고, 뒷동산엔 조상의 산소와 물 맑은 골짜기와 밤나무, 도토리나무가 무성했다. 사랑마당은 잔치 때 멍석을 깔고 차일을 치면 온 동네 손님을 한꺼번에 칠 수 있도록 넓고 바닥이 고르고 판판했지만 둘레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화나무가 덩불을 이루고 있었다” 라고 하며, 고향은 낙원, 도시는 지옥으로 도식화하였다(박완서, 엄마의 말뚝 1).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부적응과 아노미(anomie) 현상의 치유를 위하여 유희공간과 낙원을 되돌려주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고향(home)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우리 삶의 원형(prototype)으로 자리하여 우리 의식 속에서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이후의 경험이란 새로 목격된 것을 여기에 비추어진 인식이다. 그래서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향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욕구를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하려고 할 것이므로 고향 공간 이미지의 내용과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4) 고향의 개념을 현실적 문제를 조절하는 데 도입하여 고향의 과거 지향적 속성을 미래로 연결시킬 수 있다. 보편적인 고향 개념이나 고향의 지역적·시대적 특수성에 대한 지리적 고찰을 통해서 지역개발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지리적 차원에서의 환경인지와 태도의 연구, 환경 평가의 기준 마련, 환경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수렴하는 틀을 확립하고, 지역주의에 따른 각종 갈등을 극복하며, 도시·교외·촌락·야생의 자연 등이 이상적으로 복합된 환경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도 개선하여 우리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만이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보며,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구나(Oh, what a beautiful morning, oh what a beautiful day!),”라며 외칠 수 있다(Tuan, 1974, 97).

또한 사람들은 고향처럼 익숙한 곳에서 행동의 상대적 자유를 갖고,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그곳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의 평생의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보낸 곳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Beesley, 1990, 318). 미국의 경우는 76%, 그리스의 경우에는 75.3%를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은 거주지 선호에도 적용되어 캐나다의 도시인은 전원에 인접한 교외를 현저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시적 활동과 전원적 삶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Beesley, 1990, 318-330).

오늘날 사람들이 도시에서 출생하여 그들의 고향이 현재 살고 있는 도시로 대체되고 있다. 개인에 따라 고향을 출생지, 성장지, 본적지, 현주소, 선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인에게 고향은 점점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한 모퉁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류우익은 향토에 개념의 변화 즉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사랑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향토에의 확대 개념으로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현상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지역이기주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류우익, 1982, 172).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고향에 집착하고, 고향을 지키려하는 투쟁의 본질은 “그것이 텃밭이든, 마당이든, 장원이든 간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투쟁, 그리고 민족영토나 조상의 땅과 같은 공동 영역에 대한 투쟁, 의식주의 획득을 위한 투쟁, 반려자의 소유를 위한 투쟁,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려는 투쟁이다”(Holzapfel, 1952, 17). Kabylia가 파괴되어 가는 그들의 고향 산간 마을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은 사랑(It is love)”이라고 하였다(Malmberg, 1980, 111). 이러한 좁은 의미의 향토애를 확대시킨다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인숙, 1997, 강인숙문학평론집: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서울, 도서출판 등지.
- 김운찬, 1992, 파베세의 문학에 나타난 고향이미지, 어문연구, 제 5집, 효성대학교, pp. 363-388.
- 김재수, 1982, 고향회귀의 문학: 황석영논, 어문논총, 제6호, 전남대학교, 어문연구회, pp. 195-210.
- 류우익, 1992, 그곳이 어디메뇨, 마당, 1992년 12월호.
- 박완서, 1994, 엄마의 말뚝, 서울, 세계사.
- 썩찍썩썩(전혜린, 신경자 공역), 1977, 야간비행, 서울, 범우사.
- 양현승, 1987, 고향의 미학, 비평문학, 제 1집, pp.177-105.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이서행, 1984, 한국·한국인·한국정신, 서울, 대광서림.
- 이윤중, 1983, 魯迅의 <고향> 연구, 인문논집, 제 27집, 고려대학교, pp. 163-177.
- 임상윤, 1990, 고향공간 인지에 관한 연구 : 경상도 농촌출신 대학생의 경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규태 외 지음, 1998, 스스로 거름이 된 별꽃 하나, 서울, 나눔사.
- 제만해, 1994, 한국 현대시의 고향의식 연구: 노천명, 이용악 시를 중심으로, 서울, 시세계.
- Beesley, 1990, Residence Paths and Community Perception : A Case Study from the Toronto Urban Field, The Canadian Geographer, Vol. 34, No. 4, pp. 318-330.
- Cioranescu, Alexanandre, 1971, Utopia: Land of Cogaingne and Golden Age, *Diogenes*, Fall 1971, No. 75, pp. 85-121.
- Eliot, T. S., 1974, *Collected Poems 1909-1962*, Faber & Baber, London.
- Gill, Stephen, 1991,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egran, David A. and Sousan Allen Toth, 1976, "Geography Through Literature," Special Issue on Place Literature, Places, Vol. 3, No. 1, pp. 5 - 12.
- Mack, Maynard *et al.* 1979,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Masterpieces*, Vol. 2, W. W. Norton & Company.
- Malmberg, Torsten, 1980, Human territoriality: Survey of Behavioral territories in man with preliminary analysis and discussion of meaning, New Babylon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33, Mouton Publishers, New York.
- Norton, B. G. & B. Hanon, 1997, Environmental Values : A Place - Based Approach, Environmental Ethics, Vol. 19, No. 3, pp. 227 - 246.

- Pai, Margaret K., 1989, *The Dreams of Two Yi-min*,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 Porteus, J. Douglas, 1979, *Home : The Territorial Core*, *Geographical Review*, Vol. 66, pp. 383-390.
- Starobinski, Jean, 1966, *The Idea of Nostalgia*, *Diogenes*, Summer 1966, No. 54, pp. 81-103.
- Tuan, Yi-Fu, 1986, *The Good Lif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Wisconsin.
- Tuan, 1974, *Tophophilia :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향수(鄉愁)

< 정지용 시, 김희갑 작곡 >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짙벼개를 돌아 고이 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러,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도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 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